

## 미대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

### **\*비자 인터뷰에 가져가야하는 서류**

다음의 서류들을 가져가야 합니다:

- 여권
- 여권 사진(들)
- 비자 요금을 낸 영수증
- SEVIS I-20 요금을 낸 영수증
- 학생비자 신청서
- 글로벌 ESL 아카데미로부터 받은 입학확인 편지
- 글로벌 ESL 아카데미로부터 받은 I-20
- 스폰서의 재정 보증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(은행, 소득, 직업 관련 서류들)
- 본국과 연결된 고리들 (예를 들면: 부동산, 가족관계, 직업 등등) – 본인이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체류하지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입니다.
- 그 밖에 미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

### **\*비자 인터뷰에 응하는 요령**

다음의 사항들에 의해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생각을 해보고 인터뷰를 가십시오.

- 1.학업에 관하여:** 본인이 어떤 학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.
- 2.영어에 관련하여:** 비자 인터뷰가 영어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 영어를 공부하려 미국에 가는지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.
- 3.본국과의 연결고리:**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걸 설득력 있게 말해야 합니다.
- 4.재정 서류:**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
- 5.간단 명료한 자세:**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므로 인터뷰에 응할 때는 분명하면서도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6.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:** 배우자나 자녀들이 한국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양이 될 것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주요 수입원인 경우에는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인터뷰관이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국에서 송금을 해야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비자가 거부될 확률이 높아집니다.

## \*비자가 거부되는 경우

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자를 받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비자가 거부되는 극소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:

- 재정적인 능력이 증명이 안 된 경우
- 본국과의 연결고리 (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)가 증명이 안 된 경우

비자가 거부되는 경우엔 인터뷰에서 바로 알게 됩니다. 비자가 거부되면 바로 비자 인터뷰 일시와 장소, 비자가 거부된 이유에 대해서 [visainfo@globaleslacademy.edu](mailto:visainfo@globaleslacademy.edu) 로 연락을 주십시오. 비자가 거부된 이유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반복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다시 한번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비자가 끝내 거부가 되면 학교에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. I-20 신청요금과 우편료를 제외한 수업료 전액은 환불이 됩니다.